

【논 문】

한말 조선의 대외관과 영토 인식*

- 박은식·신채호의 자강사상과 고대사 인식을 중심으로 -

김 현 철**

┌ 차 례 ─┐

1. 머리말
2. 한말 조선의 대외관과 국제법(만국공법)에 대한 이해
3. 한말 조선의 영토관의 형성
4. 한말 역사의식의 고취와 고대사 인식
5. 맺음말

┌ 국문초록 ─┐

본 논문은 19세기말부터 20세기초에 이르는 동북아시아의 급격한 국제정세 변화속에서 박은식, 신채호를 비롯한 한말 조선 지식인들이 국제질서와 영토관을 어떻게 인식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했는가를 당시 신문 및 잡지 등에 게재된 논설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다.

당시 국제정세를 바라보는 시각으로서 일반적으로 ‘약육강식’ 및 ‘적자생존’의 현실하에서 일본을 비롯한 서구 열강들의 제국주의적 영토 팽창이 일반적인 양상으로 파악하였다. 당시 조선 정부와 일부 지식인들은 서구 근대 국제 규범을 포함하여 국제법을 적극 활용하여 조선의 영토와 주권을 수호하려고 시도하였으나, 힘의 정치가 작동하는 현실정치에서는 한계에 직면

* 이 논문은 본인이 지난 2011. 11. 5 한국정치학회 주최의 『2011년 추계학술회의』에서 「19세기말 국제법의 전래와 동아시아 영토문제에 대한 한국 지식인의 인식」라는 주제하에 발표한 논문의 일부를 보완·수정한 것임을 밝힙니다. 그리고 심사평을 통해 본 논문을 수정·보완하는 데 도움을 주신 3분의 심사자에게 감사드립니다.

**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 예로서 영국의 거문도 점령, 그리고 일제의 을사조약 체결 강요 등에 직면하여 국제법에 대한 기대가 크게 감소하였다. 또한 이 시기는 조선에 서구의 사회진화론과 국가론이 전래되는 것을 계기로 근대적 영토 개념에 대해서 이해하는 양상도 보여주었다. 무엇보다도 메이지 일본을 비롯하여 서구 열강들의 제국주의적 침탈에 대항하기 위해 자강을 필요함을 인식하고, 다양한 수단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었다. 20세기초 계몽운동가들은 민족의식을 고취시키면서, 고구려 등 우리 역사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특히 박은식과 신채호의 경우 한국과 만주를 비롯한 동북아의 북방 지역간의 역사적 관계를 설명하면서, 만주에 대한 많은 관심을 표명하였으며, 한국 고대사에 대한 연구 방법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 대외관, 국제법(만국공법), 자강, 영토, 만주, 한국 고대사

1. 머리말

19세기말부터 20세기초까지 조선이 직면한 국제정세의 변화를 돌이켜보면 서구 열강의 제국주의적 팽창에 직면하여 조선의 국권과 영토를 수호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었다.¹⁾ 특히 만국공법(萬國公法) 등 서구의 근대 국제법 및 국가론 등 정치사상이 전파되고, 일본과 러시아 및 중국 등 주변 국가들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는 상황에서 조선 정부와 관료 또는 정치가들이 동북아 국제정세를 비롯하여 주변 국가들을 어떻게 바라보았는가는 조선이 처한 위기상황에 대한 인식과 대응방안의 모색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²⁾

1) 본문에서 다루는 시기는 주로 조선이 서구 국가들과 국교를 수립함으로써 본격적으로 대외 개방을 하게 되는 1880년대로부터 1910년 일제에 의한 국권 상실 시기로서, 이를 ‘구한말’ 또는 ‘한말’이라는 용어로서 일컬어진다. 본 논문에서는 조선왕조와 대한제국 시기에 걸쳐 있는 ‘19세기말부터 20세기초까지’의 시기를 약칭해서 ‘한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2) 20세기초 한국의 주요 지식인들의 대외인식에 관련되어 정치학계의 기존 연구로서, 이호재, 1994, 『한국인의 국제정치관』, 법문사 ; 진덕규, 「한말 지배층의 대외인식에 대한 비판적 검토」 『국사관논총』60, 국사편찬위원회, 1994 등이 있다.

이러한 측면을 상세히 밝히기 위해서는 사실상 19세기 후반부터 1910년 일제의 한국강제병합에 이르는 시기까지 관련된 많은 광범위한 자료들을 살펴보고, 그 흐름을 정리해야 하며, 국내외 역사학계에서 이에 관한 많은 연구성과를 참조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본 논문에서는 당시대의 매우 제한된 자료의 일부만을, 그것도 선별적으로 취급하고 설명하기 때문에 서술과정에서 기존 역사학계의 설명과 중복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들다.³⁾ 그럼에도 한말의 대외관과 영토관에 대한 분석이 중요성을 띠는 점은 21세기 현재 동아시아 각국이 처한 역사와 영토문제가 사실상 19세기 후반 이후 급격한 국내외정세의 변화 및 제국주의적 침탈의 결과에 기인한 측면이 크다는 점과 관련된다.⁴⁾

이에 본 논문에서는 동아시아 영토 문제를 19세기 조선에서 어떻게 바라보았는가를 당시 국제정세의 변화에 대한 대외관의 변천과 관련지어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문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 즉 첫째, 영토 및 주권 수호를 위해 국제법(만국공법)을 어떻게 수용하고 활용하려고 했는가, 둘째, 당시 대외관의 형성과정에서 서구 및 일본의 해외 영토 팽창을 어떻게 인식하고 평가하였는가? 셋째, 조선의 영토를 수호하기 위한 방안을 어떻게 강구하였는가? 그리고 이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자강사상 및 역사 또는 민족의식의 고취는 어떠한 방향으로 전개되었는가? 등에 중점을 두고자 한다. 그 과정에서 박은식, 신채호 등 당시의 지식인들이 파악한 ‘국제법’의 효용성에 대한 인식과 ‘영토’ 및 ‘만주’지역에 대한 서술 등에 주목해 볼 필요가

3) 고조선, 부여, 고구려 등 한국고대사에 대해서는 역사학계의 여러 인식과 설명이 있으나, 본 논문에서 논지의 전개상 20세기초 한국의 민족주의적 성향을 띤 지식인의 사례로서, 신채호와 박은식의 대외관과 역사인식을 예를 들어 살펴보고자 한다. 고조선, 단군 및 부여 등에 대한 기존 연구현황에 대해서는 동북아역사재단 편, 2007, 『고조선·단군·부여 : 연구논저 목록』(동북아역사재단)을 참조하기 바람.

4) 이와 관련, 조선후기부터 한말에 이르기까지 영토문제를 살펴본 기존 연구성과로서, 배우성, 1998, 『조선후기 국토관과 천하관의 변화』, 서울: 일지사; 박명용, 2005. 4, 「연해주를 둘러싼 한국과 러시아 영토문제 - 1650년에서 1900년까지」, 『북방사논총』4호, 고구려연구재단, 37~86쪽; 하중문, 2005. 4, 「일본과 러시아의 국경획정 문제에 대한 고찰 - 포츠머스강화조약까지」, 『북방사논총』4호, 고구려연구재단, 87~125쪽 이 있음.

있다.⁵⁾

2. 한말 조선의 대외관과 국제법(만국공법)에 대한 이해

1) 19세기말 만국공법의 수용과 활용 시도

한말 조선의 일부 지식인들은 청·일 등 외세의 내정간섭을 비판하며 조선의 자주독립과 영토를 보전하기 위해서 국제법(만국공법)을 원용할 필요성을 인식하였다. 즉 서구 열강들의 사고와 행동양식이 단순히 금수와 같이 무력행사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원칙을 가지고 있음을 파악하게 되었으며, 서구의 만국공법을 원용하여 서구에 대응하려는 구상도 갖게 되었다. 특히 한말의 경우, 외국의 부당한 영토침탈 내지 간섭을 방지하거나 항의하는 지렛대로서 만국공법을 활용하여 적을 제압하거나 견제한다는 발상도 제시되었다.⁶⁾

외국과의 문호개방 및 통상조약 체결과정에서의 갈등과 진통을 겪은 후

-
- 5) 이와 관련 이시기에 대한 역사학계의 성과중 몇 가지만 들면 다음과 같다. 신용하, 1977. 3, 「朴殷植의 儒教求新論·陽明學論·大同思想」, 『역사학보』73집, 역사학회, 35~84쪽 ; 신용하, 1981. 3, 「朴殷植의 歷史觀(下)」, 『역사학보』91집, 역사학회, 145~916쪽 ; 이만열, 2007, 「단재 신채호의 고대사 인식」, 『한국 근현대 역사학의 흐름』, 푸른역사, 259~305쪽 ; 이만열, 2007, 「박은식의 사학사상」, 『한국 근현대 역사학의 흐름』, 푸른역사, 223~258쪽 ; 한영우, 1996, 「제2장 한말 신채호의 민족주의사론」, 『한국민족주의역사학』, 일조각, 39~84쪽 ; 김명구, 2002. 4, 「한말·일제강점 초기 신채호의 민족주의 사상」, 『백산학보』62호, 백산학회, 229~262쪽 ; 김명구, 2009. 3, 「신채호의 고구려사 인식 -북한에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동북아역사논총』23호, 동북아역사재단, 239~269쪽 ; 최홍규, 2005, 『신채호의 역사학과 민족운동』, 일지사 ; 현광호, 2009. 4, 「박은식의 동아시아 인식」, 『백산학보』83호, 백산학회, 645~674쪽 ; 조인성, 2009. 3, 「신채호의 고구려사 인식 -북한에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동북아역사논총』23호, 동북아역사재단, 239~269쪽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미처 다루지 못하는 만주, 몽골 등 북방민족의 역사와 한국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현황에 대해서는 동북아역사재단 편, 2007, 『북방민족사 : 연구논저 목록』, 동북아역사재단을 참조하기 바람.
- 6) 이와 관련, 한말 조선에서 만국공법의 수용 경로에 대해서는 김현철, 2005b, 「개화기 서구 국제법의 수용과 근대국제질서의 인식」, 『한국정치연구』제14집 1호, 서울대 한국정치연구소, 91~100쪽을 참조하기 바람.

임오군란의 사후수습을 위해 1882년 8월 5일 전국에게 내려진 고종의 교서에서는 만국공법을 수용하여 외국과의 조약을 체결하려는 당시 조선 집권층의 인식이 잘 나타나 있다.⁷⁾ 이러한 의지 표명은 조선 정부 차원에서 당시 만국공법을 국제 규범의 일환으로 인식하고, 이를 적극 수용하려고 시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관심을 반영하듯 1882년 8월 23일 지식영의 상소와 같은 해 10월 7일 변옥의 상소문에서 이들 책제목이 거론되는 것을 볼 때, 이 시기에 들어서 번역서적 『만국공법』이 조선의 지식인 사이에 이미 널리 유포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변옥(卍濬)은 부국강병을 목적으로, 새로운 국제질서에 참여하여 각국과 우호관계를 정립하고 『만국공법』 등의 책자를 간행하여 전국에 보급시킬 것을 강조하였다.⁸⁾

1885년 영국의 거문도 점령 당시 조선 정부는 만국공법을 활용하여 조선의 자주독립을 보전하기 위해 영국 정부에 항의서한을 발송하였다. 1885년 4월 7일(음) 독변교섭통상사무(督辦交涉通商事務) 김윤식(金允植)은 칼스 주한 영국 총영사대리와 오코너 주청임시대리공사에게 공문을 보내 거문도 점유 논의는 양국의 우의와 ‘만국공법’에 어긋나는 것임을 들어 즉시 중단할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조선주재 각국 외교관들은 영국의 행동을 불법이라고 하면서도 본국정부로부터 훈령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조·영 양국이 원만히 타결하기를 바란다고 회답할 뿐이었다.⁹⁾

조선 정부가 기대를 걸었던 만국공법은 영국의 거문도 불법점령이라는 외국에 의한 영토침탈에 아무런 억제효과를 발휘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현실을 지켜보면서, 박영효 등 일부 개화파는 1880년대 중후반에 들어서서 만국공법에 대하여 회의적인 입장을 표명하였다. 박영효의 경우, 「1888년 상소문」에서 서구 근대 국제질서의 양상을 과거 중국의 전국(戰國)시대의 혼란

7) 『고종실록』, 고종 19년 8월 5일조.

8) 『고종실록』, 고종 19년 8월 23일조와 10월 7일조.

9) 영국의 거문도 점령당시 조선 정부의 대응에 대한 개괄적 설명은 김용구, 2009, 『거문도와 블라디보스토크』, 서강대출판부, 119~161쪽, “제3부 조선의 항의와 영국의 거문도 철수”를 참조하기 바람.

상에 비유하였으며, 국제질서의 기본 성격을 강대국이 약소국들을 자국의 식민지로 삼는 약육강식의 상황으로 파악하였다. 「1888년 상소문」에서는 당시 국제사회에 현대의 국제법에 해당되는 ‘만국공법(萬國公法)’이 존재하며, 그것에 근거하여 각국이 자국의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고 보았다. 그렇지만 만국공법의 실효성에 대하여 국제관계의 현실을 돌이켜 볼 때 이것을 주장하는 나라가 자립과 자존의 힘이 없으면 만국공법은 사실상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고 지적하였다. 박영효는 이점을 다음과 같이 잘 설명하고 있다.

비록 만국공법(萬國公法)과 균세공의(均勢公義)가 있긴 하지만 한 나라에 자립과 자존의 힘이 없으면, 반드시 영토의 삭탈과 분할을 초래하게 되어 나라를 유지할 수 없게 됩니다. 만국공법과 공의는 본래 믿을 만한 것이 못 되는 것입니다. 서구의 개명하고 강대한 나라도 역시 패망을 맛보았는데, 하물며 아시아의 개명하지 못한 약소국이야 말할 나위가 있겠습니까? 대체로 구라파인들은 입으로는 법과 도리를 일컫지만 마음속으로는 야수의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¹⁰⁾

개화파의 이러한 만국공법관은 ‘만국공법’이 사실상 구미 강대국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으며, 약소국인 조선 등 비서구 국가에는 사실상 적용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는 것이었다. 이에 그 대응방안으로서 국제법(만국공법)의 수용을 포함하여 자주독립의 외교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내정개혁이 우선되거나, 또는 내정과 외교가 병행되어야 한다는 논의가 대두되었다. 그 예로서 1880년대 중반 『한성주보(漢城週報)』의 「논외교(論外交)」(제25호, 1886년 7월 24일)에서는 서양 각국이 군비를 증강하고 군사력으로 진출하는 것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공법과 조약만을 외교의 중요함으로 여기는데 그치지 않고 스스로 진흥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보았다.

10) 朴泳孝, 1888, 「朝鮮國內政ニ關スル朴泳孝建白書」, 日本 外務省 編, 『日本外交文書』21卷, 296쪽.

개화파의 이러한 입장은 1890년대 후반에도 사실상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독립신문』의 1898년 1월 18일, 20일, 22일자 논설 “지각이 있는 사람의 말”에서는 한국인의 성품에서 외국에 의존하려는 마음이 가장 큰 폐단임을 지적하면서, 청국, 일본, 러시아 등을 배경으로 개화정책을 시도하였으나 독립이 이루어지지 못했음을 한탄하고 있다. 대포 등 자위할 수 있는 실력이 뒷받침되어야 외국과 동등하게 교섭하고 자주독립을 유지할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서양의 근대적 학문의 수용과 외국 유학을 적극 권장하였다. 한편 1899년 1월 1일 전 도사(都事) 전병훈(全秉薰)의 상소문 “시무에 관한 상소”에서는 『공법편람(公法便覽)』을 거론하면서 벨기에와 스위스의 독립이 인정된 사례를 참조할 것을 주장하였다.¹¹⁾

2) 20세기초 국제법의 활용시도와 비판

1905년 11월 17일 을사조약의 체결로 조선이 일본의 보호국화될 운명에 처하자, 국권회복을 위한 일련의 운동이 전국적으로 전개되었다. 을사조약의 체결이후 의병운동을 주도한 유학자들은 국제법에 의거하여 일본의 불법행위를 무효화시키고 세계 각국의 여론을 환기시키고자 하였다. 이 과정에서 『만국공법』, 『공법회통』, 『공법편람』 등이 크게 원용되었다. 즉 강압에 의한 조약은 당연히 무효라는 점과 비준되지 않은 조약은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는 국제법상의 이론을 들어 을사조약의 폐기를 상소하였다.¹²⁾

유학자들이 국제법에 의거하여 일본의 불법행위를 무효화시키고 세계 각국의 여론을 환기시키려고 했던 것과 대조적으로, 국제법에 의존하는 것에 비판적인 견해도 대두되었다. 그 예로서 이승만은 조선이 정부에 의뢰할 힘이 없으므로 공법도 소용없고 약장(約章)도 효력이 없다고 보았다. 그럼에도 이승만은 조선이 외교를 잘 함으로써 다른 나라의 침탈을 면하도록 해야 한

11) 『고종실록』, 고종 36년 1월 1일조.

12) 최창희, 1999, 「유생의 상소투쟁」,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43 : 국권회복운동』, 탐구당 문화사, 81~94쪽.

다고 주장하였다.¹³⁾

이와 같이 조선의 주권과 영토를 빼앗길 위기에 처하였으나, 기대를 걸었던 만국공법의 존재는 조선의 자주독립에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박은식은 다음과 같이 조선과 같은 약소국은 어느 국가도 믿고 의지할 수 없으며, 국제법에 의존하는 것에 비관적인 견해를 밝혔다.

객이 나에게 물었다.

“그동안 우리 한국이 동서 열강과 체결연호(締約聯好)한 것이 30여 년인데, 희생(犧牲)과 옥백(玉帛)으로 정과 예의를 극진히 해서 흑시라도 감히 헤이하게 한 적이 없었으니, 저 연호(聯好)한 각방(各邦) 또한 우리를 박하지 않게 응대하여, 영원히 변치 않고 우리의 독립을 유지해 줄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만일 불행히 어떤 강국의 압력으로 우리의 독립이 위태로워지는 경우엔 평소 연호(聯好)한 각방(各邦)이 옛 우의를 돌아보고 공법에 준거해서, 강자가 약자를 능멸하고 다수가 소수에게 횡포를 부리는 부정행위를 금지하고 우리의 주권을 공동 유지해 줄 것으로 믿었더니, 일이 도리어 본연에서 크게 잘못되어 하루아침에 외교가 단절되고 주권이 무시되는 참상을 당하였소. 그런데도 저 연호(聯好) 각방(各邦)은 예전의 우호를 갑자기 잊고 모두 팔짱을 끼고 뒤로 물러나 심상하게 바라볼 뿐 말이 없으니, 이른바 공법이 어디 있으며 인도(人道)를 어찌 논할 것이 있겠소? 아니면 흑시 열강이 그 시기를 기다렸다가 공의(公義)를 성명하고 우리의 독립을 원조해서 옛 우호를 회복할 기망(期望)이 있는가?” ... ¹⁴⁾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당시 일부에서 우호적 강대국의 출현과 국제사회의 지원을 한가닥 마지막 희망으로 기대해온 것과 달리, 박은식은 서구 열강이 조선을 원조해 주기를 바라는 것은 하나의 망상이며 커다란 불행을 자초할 것이라고 보았다. 설사 열강들의 조선 원조 성명이 있더라도 이를

13) 이승만, 1904, 『독립정신』, 정동출판사, 254~263쪽.

14) 朴殷植, 1906, 「自強能否의 問答」 『大韓自強會月報』제4호, 大韓自強會. 현대어로 풀이쓴 것은 이만열 편, 1980, 『朴殷植』, 한길사(이하 『朴殷植』으로 약칭함), 32쪽 참조. 원문은 백암박은식선생전집편찬위원회, 2002, 『白巖朴殷植全集』제5권, 동방미디어, 317~319쪽을 참조하기 바람.

사양해야 한다고 보았다.

3. 한말 조선의 영토관의 형성

1) 일본의 해외 영토 팽창

한말 조선에서 영토 문제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 가장 큰 배경으로서, 당시 일본이 해외 영토 팽창을 다음과 같이 정책방향으로 삼았으며, 그 주요 대상이 한반도였기 때문일 것이다. 메이지유신 초기 일본 외교를 담당했던 후쿠시마 다네오마(副島種臣)의 경우, 당시 국제관계를 “강대국이 약소국을 병합함으로써 영토를 넓히고 국익을 꾀하는 쟁탈세계”로 바라보았다. 이러한 국제정세관을 기반으로 약육강식의 국제정치 현실에서 일본이 생존하고 독립을 유지하는 유일한 길은 일본이 아시아대륙에 영토를 가져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다.¹⁵⁾

메이지시기 일본 정부의 대외정책 구상을 잘 엿볼 수 있는 것으로서 1890년 12월 6일 일본 군부의 대표적인 아마가타 아리토모(山縣有朋)는 일본의 외교·군사문제에 관해 자신의 의견을 밝히는 시정방침연설(「山縣有朋意見書」)에서, ‘(일본) 국가의 독립자위의 길’은 ‘주권선(主權線)’과 ‘이익선(利益線)’을 정해 방어하는데 있다는 견해를 표명하였다. 즉 일본의 안전을 위해서는 조선이 청국, 러시아 등 일본의 적대 국가의 영향력하에 들어가서는 안되며,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조선을 일본의 영향력 아래 뚫으로써 일본의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고 여겨졌다.¹⁶⁾

청일전쟁은 당시 일본 지식인들의 사상사적 흐름에도 커다란 영향을 주어서, 이후 일본이 중국과 만주로의 해외팽창을 추진해나가는 것을 직간접적으

15) 한상일, 2002, 『아시아 연대와 일본제국주의 : 대륙낭인과 대륙팽창』, 도서출판 오름, 40쪽.

16) 田中彰, 1999, 『小國主義 - 日本の近代を讀みはなす』, 岩派書店; 강진아 역, 2002, 『소일본주의 - 일본의 근대를 다시 읽는다』, 도서출판 소화, 102쪽; 이리에 아키라(入江昭) 저, 이성환 역, 2002, 『일본의 외교』, 푸른산, 45쪽, 319~320쪽.

로 정당화하는 논의들이 대두되었다. 그 예로서 『국민지우(國民之友)』, 『국민신문(國民新聞)』을 창간하여 진보적 평민주의를 주장한 도쿠도미 소호(德富蘇峰)는 청일전쟁시기에 ‘일본 국민의 급선무’는 ‘국민적 팽창’에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국민적 팽창을 일본 국민이 세계에 웅비하며, 세계를 향해 대의를 펼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으로 설명함으로써, 사실상 일본의 해외팽창을 정당화하였다. 또한 메이지 유신시대 저명한 언론가로서 일본 국민의 통일과 독립을 주장해온 구가 가쓰난(陸羯南) 역시 청일전쟁이후에는 메이지 유신의 연장선상에서 일본 정부의 대륙침략행동을 정당화하기에 이르렀다.¹⁷⁾

2) 서구 정치사상의 수용과 그 영향

또한 한말 조선에 서구의 근대적 정치사상, 특히 사회진화론이나 국가론 관련 내용들이 전파되면서, 이에 대한 이해는 국제정치 현실을 바라보는 시각뿐만 아니라 영토문제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키는 계기가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한말에 사회진화론이 소개되는 경로로서, 1880년대에는 일본, 그리고 1890년대 이후로는 주로 중국을 통해서였다. 유길준(兪吉濬)이 1880년대 초 일본과 미국 유학시절에 후쿠자와 유키치(福澤諭吉)과 모오스로부터 진화론에 관하여 영향을 받았다. 1895년에 발간된 『서유견문(西遊見聞)』에서는 경쟁의 내용이 소개되면서, 인류는 미개→반개화→개화(문명)의 방향으로 진보한다고 설명하였다. 그리고 1895년 청일전쟁에서 일본의 승리를 목격한 후, 사회진화론에 관한 내용이 좀더 소개되기 시작하였다. 독립협회의 경우, 제국주의를 생존경쟁의 표본으로 합리화하였으며, 역사를 생활유지와 종족보호의 과정으로서, 또한 경쟁을 종족보호를 위한 것으로 설명하였다.¹⁸⁾

17) 『국민지우(國民之友)』제263호, 1895년 9월 23일, 『日本國民の活題目』, 田中彰 저·강진아 역 2002, 위의 책, 104~105쪽에서 재인용함; 박양신, 2001, 『청일전후 일본 지식인의 대외인식론: 陸羯南과 德富蘇峰을 중심으로』, 단국대 동양학연구소, 『동양학』제31집, 189~206쪽.

18) 신연재, 1991, 『동아시아 3국의 사회진화론 수용에 관한 연구-加藤弘之, 梁啓超, 申采浩

1905년 러일전쟁과 을사조약이후 조선의 많은 지식인들이 민족주의적 의식을 고취시키고 제국주의에 대한 대처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사회진화론이 원용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 예로서 1910년 이상룡(李相龍)의 『진화집설(進化輯說)』에서 다윈의 『종의 기원』을 읽은 것으로 보인다.¹⁹⁾ 이와 같이 한말 조선에서 사회진화론의 전래과정을 보면, 이를 수용하는 지식인의 교육배경과 정치적 입장에 따라 커다란 차이를 보여주었다. 즉 일본, 미국 등의 영향을 받은 지식인들의 경우 사회진화론을 진보의 논리로 인식하여, 조선의 문명화를 위해서는 제국주의 열강의 침략도 긍정적으로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반면, 유교적 교양에 입각한 박은식, 장지연 등은 외세에 의존하지 않고 자강할 것을 주장하였다.²⁰⁾

이 시기에 사회진화론이 수용되는 과정을 잘 보여주는 것으로서, 당시 국제정치의 현실을 설명하는 것으로서, ‘약육강식’이라는 표현을 들 수 있다. 계몽운동단체들인 대한자강회, 신민회, 서우학회, 대한협회 등의 창립취지문에서도 약육강식의 국제질서관이 잘 드러나고 있다. 그 예로서 박은식 등이 참여한 서우학회(西友學會)의 창간 취지문에서도 다음과 같이 국제정치의 현실을 생존경쟁의 양상이 전개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모든 사물이 외로우면 위태롭고 군집(群集)하면 강하며, 합하면 이루어지고 떠나면 패하는 것은 본래부터 그러한 이치이다. 하물며 자금 세계에 있어서 생존경쟁이 천연(天演)의 일이요, 뛰어나면 이기고 용렬하면 패하는 것(優勝劣敗)은 공례(公例)라고 한다.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사회가 단체가 되고 안된 것으로서 문명과 야만이 구별되고, 존망(存亡)이 분별되는 것이다.²¹⁾

의 사상을 중심으로,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64~66쪽.

- 19) 중국을 통해서 사회진화론이 수용되는 경로로서 량치차오(梁啟超)의 영향을 들 수 있다. 량치차오의 『戊戌政變記』가 1897년 『독립협회보(獨立協會報)』에 소개된 이후, 량치차오가 일본 망명시절 발간한 『清議報』, 『新民叢報』 및 『飲水室文集』 등이 전래되었다. 1908년 김항기(金恒基)는 량치차오의 저술인 『飲水室文集』을 『飲水自由書』로 번역하였다. 신연재, 1991, 위의 글, 66~68쪽.
- 20) 정낙근, 1993, 「개화지식인의 대외관의 이론적 기초」 『한국정치학회보』27집 1호.
- 21) 朴殷植, 1906, 「西友學會 취지서」 『大韓每日申報』347호. 현대문은 『朴殷植』, 37쪽 참조.

장지연도 서구의 사회진화론의 영향을 받아 당시 국가간 생존경쟁(生存競爭)을 ‘천연(天演)’으로, 약육강식(弱肉強食)을 ‘공례(公例)’로 명명하면서, 이러한 국가간의 경쟁 상태에 주목하였다.²²⁾ 그리고 박은식은 좀더 구체적으로 인류역사를 문명 민족에 의해 야만 민족이 쇠멸되는 것이 하나의 원리적 현상으로 설명하고 있다. 즉 일찍이 지구위의 각종 민족들의 역사를 보건대, 문명한 민족이 강해지면 어두운 민족이 멸망한다는 것은 일정한 원리이다. 이것으로 보면, 인종의 성쇠도 이와 같아서 문명한 민족이 강성해지면 어두운 민족은 필연적으로 쇠멸하는 것이므로, 오늘날 한국 민족이 생존경쟁의 시대를 당해 위태로우며 두렵게 되었다고 설명하였다.²³⁾

또한 서구의 국가관련 정치적 이론을 수용한 예로서, 이기는 「국가학설」에서는 국가의 세 구성요소로서 다음과 같이 토지, 신민, 주권을 열거하면서, 국가 형태로서 독립국, 연합국, 보호국, 식민국, 속국 등으로 구분하는 등 서구의 국가설을 소개하였다.

국가학 제일(國家學 第一)

국가의 성립

국가란 무엇인가? 공동단체(共同團體)를 말한다. 그러므로 국가를 창립하려는 자는 반드시 세 가지 일을 갖춰야 한다.

첫 번째는 토지다. 수초(手草)를 쫓아다니면서 유목해서 삶을 영위하는 것들은 나라라고 할 수 없다. 나라를 세우는 자는 반드시 일정한 토지를 영유해야 비로소 영구히 후세에 물려주면서 존속할 수 있다.²⁴⁾

또한 최석하(崔錫夏)는 「국가론(國家論)」에서 서구학계의 국가, 국가주의 개념을 원용하면서 제국주의와 생존경쟁의 세계에서 생존하려면 애국심과 국

22) 張志淵, 1906, 「自強主義(續)」, 『大韓自強會月報』4, 단국대 동양학연구소, 1987, 『張志淵全書』 8, 단대출판부, 465~466쪽.

23) 朴殷植, 1909, 「物質改良論」, 『西北學會 月報』1권 제8호, 『朴殷植』, 15~17쪽.

24) 李沂, 1908, 「國家學說」, 『湖南學報』제1호, 1908년 6월. 이기(李沂, 1848~1909)는 한말 유학자로서 1905년 포츠머스조약체결 때 일본에 건너가 천황과 정계 요인에게 조선 침략을 규탄하는 서신을 보내 항의하였으며, 대한자강회를 조직하여 계몽운동을 주도하였다.

가사상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그리고 국가는 개인으로 구성된 단체로서 국망의 위기에 처해서 개인의 헌신과 충성이 절실하다는 점을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국가주의가 발달한 구미인(歐米人)은 국가에 대해 항상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않음으로써 사람마다 그 정의를 명료하게 해석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사람은 그렇지 않아서 옛날부터 국가에 대해 냉담한 편견이 있을뿐더러 왕왕 그 진의를 오해한다. 그러므로 내가 알은 지식에도 불구하고 들은 바를 대략 기술하려는 것이다.

옛날부터 국가의 정의(定義)에 대해 학자들의 논의가 같지 않지만, 금일 문명한 나라들에서 통용되는 학설은 다음과 같다.

“국가는 일정한 토지를 보유하고 또 권력으로써 통일하는 인민의 단체”라는 것이다. 이 정의를 분석하면 국가엔 세 가지 요소가 있다. 첫 번째는 토지이다. 수천만인이 공동으로 단체를 결합하더라도 일정한 영토가 없으면 국가라고 부를 수 없다. 그러므로 학자가 고대에 수초(水草)를 따라 팔방(八方)으로 표류하던 만족(蠻族)의 단체를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토지의 크기엔 구별이 없으니, 전 세계에서 제일 광대한 영토를 가진 영국도 한 국가고, 탄환처럼 작은 모로코(摩洛哥)도 한 국가다.

두 번째는 권력이다. 일정한 토지가 있고 숫자가 많은 민족이 있더라도 이것을 통치하는 주권자가 없으면 국가가 아니다. 그러므로 문명한 나라들에선 치자와 피치자의 구분이 명료해서 인민이 그 주권자에 대해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인민의 단체다. 이는 사회에 무수한 단체들이 존재했지만, 국가는 단순한 단체가 아니며 일정한 토지와 권력으로 조성한 단체인 것이다. ...²⁵⁾

3) 서구 제국주의의 영토 팽창 추세 인식

위에서 살펴본 사회진화론의 영향아래 박은식은 국제정세를 제국주의의 힘의 논리가 적용되는 곳으로 파악하였다. 박은식은 영국의 대인도·이집트 정책과 미국이 필리핀에 대해 취한 수단들이 말로써는 보살(菩薩)이지만

25) 崔錫夏, 1906, 『國家論』 『太極學報』제1호.

그 행동은 야차(夜叉)에 비유하였다. 따라서 조선은 어느 국가도 믿고 의지할 수 없으며, 자강의 성질과 자립의 능력이 없으면 결코 노예를 면할 수 없다고 보았다.

… 내가 말했다.

“아아! 그것이 무슨 말씀이오? 현재의 시대는 생존경쟁을 천연(天演)이라고 말하며, 약육강식을 공례(公例)라고 말한다. 저 가장 문명한 나라라고 하는 영국도 인도와 이집트에 대하여 어떠한 정책을 썼으며, 덕의를 숭상한다는 미국도 필리핀에 대하여 어떠한 수단을 썼던가? 현재 열국의 새매처럼 날고 범처럼 뛰는 자는 그 입으로 말하는 것은 보살이요, 그 행동은 야차인 것이다. 누구를 믿고 누구를 의지하겠는가? 오직 이것뿐이 아니다. 그 사람의 자격이 자강의 성질이 없으며, 자립의 능력이 없이 그저 남의 행동에만 의지하는 자는 결코 노예를 면할 날이 없을 것이다. …”²⁶⁾

신채호(申采浩)도 당시 국제정세의 흐름을 다음과 같이 제국주의, 민족주의 및 자유주의의 세계로 규정하였다. 이러한 시각하에 조선이 제국주의의 희생물이 된 현실을 지적하면서, 각성을 촉구하였다.

… (갑) 세계의 추세

(一) 이 세계는 제국주의(帝國主義)의 세계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삼키고 큰 자가 작은 자를 병탄함은 원시시대에 이미 있던 바다. 그러나 근세 이래로 이것이 더욱 격렬하여 결국 제국주의의 큰 움직임이 우주에 진동하니, 이에 구주 열강이 긴 채찍을 들고 세계에 횡행해서 동으로 아세아(亞細亞)를 침략하며, 남으로 아프리카를 분할하며, 동남으로 대양주를 점령하여, 구주인의 발이 닿는 곳에 산하가 진동하고 구주인의 깃발이 꽂히는 곳에 천지가 변하는도다. (중략)

(二)

또 이 세계는 민족주의(民族主義)의 세계다. 같은 동족이면 합하고 다른

26) 朴殷植, 1906, 『自強能否의 問答』 『大韓自強會月報』 제4호. 현대문으로 풀어쓴 것은 이만열 편, 『朴殷植』, 32~34쪽을 참조.

종족이면 다투는 것은 태고시대로부터 이미 있던 바다. 中古이후로 그 경쟁이 더욱 심하고 참혹해져서 승자는 그 위세가 더욱 확장되고 패자는 영영 쇠멸한다. 이 때문에 백인이 미주에 전횡함에 홍인(紅人)이 도태 당하고, 이후 백인이 대양주에 들어가자 흑인은 사멸되어 가며, 이후로 러시아인 밀의의 유태인과 폴란드인들이 학대를 당하게 되고, 그 외 다른 어떤 민족이 어떤 민족을 정복하든지, 우수열패(優勝劣敗)가 벌어지는 장면은 참혹함이 이루 다 말하기가 어렵다. 아야! 이 세상의 민족주의가 어찌 이 지경에 이르렀는가! ...²⁷⁾

20세기초 서구 열강의 제국주의 추세와 영토 확장을 상세히 언급한 논설로서 채기두(蔡基斗)의 「평화적 전쟁」을 들 수 있다. 채기두는 국제정치 현실을 다음과 같이 적자생존 원리가 지배하는 것으로 설명하면서, 19세기 이래 국민주의가 식민주의로, 제국주의로 변환되었음을 지적하였다.

... 아야! 지금 열강들의 격렬한 정책은 대략 이상과 같지만, 기왕에 획득한 토지를 지배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각각 동일하지 않다. 혹은 종주권의 명목에 따라 보호 감독을 시행하는 나라도 있고, 혹은 완전한 속국의 대우를 행하는 나라도 있고, 혹은 정치상 보호권과 종주권을 갖지 않고 다만 무역상, 공업상의 이익을 독점하는 나라도 있다. 이는 모두 자국에 대해서 실리와 실익이 존재한다고 인정한 이상엔 비록 병혁(兵革)의 위험이 있더라도 이것들을 지키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최후 목적은 자국의 판도를 확장하고 국민적 발전을 달성하는데 있는 것이다. (...중략...)

이 때문에 열강은 이러한 영토 확장에 있어서 다소간 도덕상의 이유가 있다고 성언(聲言)하기를, “지금 세계의 대부분은 무지하고 무능한 민족들의 손 안에 있어서 천연 부력(天然富力)을 발달시키기 어렵다. 즉 전 세계의 인구는 매년 증가하는 동시에 멀리 떨어진 지방의 천연 부력을 개척해서 인류가 행복을 향유하게 해야 하는데, 열등 민족이 이를 점령해서 미개한 상태로 폭진(暴殄)하는 것은 하늘의 뜻에 위반된다. 그러므로 다른 우등 민족이

27) 申采浩, 1910, 『二十世紀 新國民』 『대한매일신보』 1910. 2. 22~23일자. 인용문의 원문은 단재신채호선생기념사업회, 1982, 『丹齋申采浩全集』(이하 『丹齋申采浩全集』으로 약칭함)(별집), 형설출판사, 212-213쪽 참조. 『二十世紀 新國民』의 전체 내용은 『丹齋申采浩全集』, 210~229쪽을 참조하기 바람.

이 열등 민족을 지휘, 감독해서 그 생산을 증진시킬 방법을 강구할 것이다.” 고 한다. 영토 확장을 도모하는 구실은 여기서 그칠 뿐만 아니라, 그들은 또 세계를 가장 유력한 인종이 상속할 재산이라고 해서 어떤 민족에겐 야만 또는 미력한 자를 몰아내고 영토를 점령할 천연 권리(天賦權利)가 있다고 주장한다. ...²⁸⁾

이러한 인식하에 채기두는 식민주의와 제국주의는 명칭은 다르지만 실제로는 같은 ‘평화적 전쟁’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그는 서구 열강의 진출 수단인 ‘평화적 전쟁’에 대항하는 방법으로서 ‘무장적 전쟁’, 즉 무장투쟁을 준비하는 길밖에 없다고 보았다.

4. 한말 역사인식의 고취와 고대사 인식

1) 자강 사상과 민족의식의 고취

국제관계에서 힘의 논리를 중시하는 적자생존적(適者生存的) 대외인식은 20세기초 당시 지식인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쳤다. 실력양성론을 주창하는 지식인 또는 정치가들의 경우 한민족의 무능부패와 분열된 열등한 속성 때문에 우세한 일본 민족에 병합당하고 망국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았다. 그렇지만, 이들은 애국계몽운동, 자주자강운동, 근대적 국민교육과 산업진흥으로 한민족의 열등한 속성들이 극복될 수 있으며, 실력양성으로 힘을 기르는 등 점진적으로 가능한 조건이 주어졌을 때 조선의 독립이라는 국가적 목표가 달성될 것으로 전망하였다.²⁹⁾

28) 蔡基斗, 1908, 『平和的 戰爭』 『대한학회월보』 제6호·제7호(1908년 7월·9월).

29) 실력양성론자 이외의 당시 조선 지식인들의 대외인식은 다음과 같이 유형화해 볼 수 있다. 즉 첫째, 패배주의자의 경우, 한민족의 소멸을 어찌할 수 없는 운명으로 받아들이면서, 생존경쟁에서 이긴 적자인 일본제국주의에 협력 또는 병합함이 한국인의 장래에 이익이 될 것으로 보았다. 둘째, 무력투쟁론자의 경우, 적자생존원리가 지배하는 국제정치의 현실을 인정하면서도, 실력양성론을 이상주의, 또는 비현실적이라고 비판하였다. 그리고 셋째, 외교론자의 경우로서 이승만(李承晩)은 한국독립의 상실과 회복을 약소국 한

그리하여 제국주의적 영토 팽창의 시대하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계몽운동가들은 조선에서 자강(自強)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계몽운동가들은 자주 독립을 위해 정치·경제·사회·문화·교육 등의 분야에서 개혁의 필요성과 구체적 방법론의 모색을 상징하는 ‘자강’ 사상을 고취시켜나갔다. 조선의 현실을 자각하여 자강을 도모해야 된다는 논의는 1905년 을사조약 체결 이전부터 박은식, 장지연 등 계몽운동가들에 의해 제시되었다.³⁰⁾ 그 예로서 박은식은 서구의 개명한 민족들이 지식 개발과 식산으로 국력을 증진시키는 점을 본받아, 조선에서도 국민 모두가 자강 사상으로 실력 양성할 것을 주장하였다.

아이! 현재의 시대는 세계의 인류가 생존경쟁으로 이기고 지는 시기인 것이다. 국민의 지식과 세력을 비교하여 영욕과 존망을 판가름하게 된다. 저 개명한 나라의 민족은 교육으로 지식을 개발하고, 식산으로 세력을 증진시켜서, 오직 남보다 뛰어나기만을 도모하고 힘쓴다. (...중략...) 이에 대한자강회가 뜻있는 자의 발기로 결성되었다. 그 주지와 목적은 일반 국민의 교육을 일으키며 식산을 발달시켜서, 사람 하나하나가 모두 자강의 사상으로 자강의 실력을 양성코자 하는 것이다.³¹⁾

이러한 일련의 사상적, 정치적 흐름은 이 시기 조선에서 일제에 대한 저항과 국권 수호를 위한 민족주의가 대두되는 과정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조선에서 서구의 사회진화론과 국가론의 수용과정에서 민족주의 및 민족개

민족의 능력과는 상관없이 강대국간 권력투쟁의 부산물로서 바라보았다. 이호재, 1994, 『한국인의 국제정치관』, 법문사, 173~175쪽.

- 30) 朴殷植, 1904, 「論學由發憤」, 『學規新論』, 『朴殷植』, 69쪽. 장지연도 국권회복, 국력배양을 위하여 교육과 산업을 추진하며, 국민적 단결로 민족과 국권을 보존하고자 하였다. 이와 관련, 대한자강회(大韓自強會) 등 계몽운동 단체의 결성과정과 참가자 및 사상적 측면에 대한 설명은 국사편찬위원회, 1999, 『한국사 43 : 국권회복운동』, 탐구당 문화사 ; 박찬승, 1992, 『한국근대정치사상사 연구 - 민족주의우파의 실력양성론』, 역사비평사 ; 유영열, 1997, 『대한제국기의 민족운동』, 일조각 ; 조항래 편저, 1993, 『1900년대 애국계몽운동연구』, 아세아 문화사를 참조하기 바람.
- 31) 朴殷植, 1906, 「大韓精神」, 『西北學會月報』 제3권 제16호. 현대문으로 풀어쓴 것은 『朴殷植』, 26~27쪽 참조.

념 등 서구의 다른 정치 개념도 같이 수용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 과정에서 서구 열강의 세력이 아시아 지역에 확장되는 것을 우려한 조선의 지식인들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제국주의 세력으로부터 도입된 민족주의 개념을 수용하면서 자국의 단합을 강조하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국혼과 단군에 대한 강조, 이른바 애국주의에 대한 고취를 강조하였다.³²⁾

박은식은 당시 국제 질서를 천연과 공례의 사회진화론적 입장에서 파악하여 자강을 강조하였다. 기존 연구에 의하면, 박은식의 역사인식은 영웅대망론 또는 영웅사관을 내세웠다. 박은식은 역사학이 정신교육에 필요한 것이며, 정신교육의 재료로는 고대 한인의 역사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또한 박은식은 국가의 독립을 위해서는 전통적인 국혼 유지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정신교육 및 국혼유지에 무엇보다 국사가 가장 중요한 몫을 차지하고 있다고 보았다.³³⁾

그리하여 당시 계몽운동가들에게 국민의식 및 민족의식의 고취가 하나의 과제로 대두되었다. 박은식의 경우, 서구 국가의 독립 및 통일국가 달성과정에서 비스마르크의 소학교 교육과 마치니의 청년교육 등의 경우처럼 국민의 정신교육을 강화시킨 점을 중시하였다. 따라서 장차 조선인들이 노예신세를 면하고 자유와 독립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시급히 학교를 설립하여 교육을 진흥시킬 것이 주장되었다. 박은식은 저항적 민족주의적 의식을 고취시키는 요소로서 ‘대한정신(大韓精神)’과 ‘국혼(國魂)’ 등을 강조하였다.³⁴⁾

박은식의 경우 한국 민족이 자강자립의 정신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사람

32) 이와 관련, 서영대, 2008, 「근대 한국의 단군인식과 민족주의」, 『동북아역사논총』20, 동북아역사재단, 7~49쪽을 참조하기 바람.

33) 이러한 평가는 이만열, 2007a, 「박은식의 사학사상」, 『한국 근현대 역사학의 흐름』, 푸른역사, 224~227쪽, 245~246쪽 참조. 박은식의 사상과 역사인식에 대한 설명은 이만열, 2007a, 위의 글을 참조하기 바람. 그리고 박은식과 신채호 두 사람을 비교한 연구로서, 유영욱, 2009, 「白巖과 丹齋의 연개소문 인식」, 『역사와 경계』71호, 부산경남사학회, 203~237쪽; 배용일, 2002, 『박은식과 신채호 사상의 비교 연구』, 경인문화사가 있다.

34) “오직 이 대한은 곧 우리의 조국이다. 삼천 리 강토는 곧 우리 가족들의 집이요, 사천 년 문물은 곧 우리 가족의 世傳인 것이다. 우리 이천만 동포의 祖祖父父 子子孫孫이 혈맥이 서로 이어져서 그 性命과 몸뚱이가 오직 대한정신의 결정인 것이다.” 朴殷植, 1906, 「大韓精神」, 『西北學會月報』제3호 제16호. 『朴殷植』, 26~27쪽 참조.

들의 머릿속에 우리 역사가 살아 있으면 한민족이 어떠한 곳에 표류하여도 조선은 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하에 한국 고대사를 강조하게 되었다.³⁵⁾ 박은식은 정신교육의 재료로서 고대 위인들의 역사를 가르쳐야 하며, 그 예로서 징기스칸이 몽고족의 영웅인 것인 점을 비롯하여, 마르틴 루터, 크롬웰, 워싱턴, 나폴레옹, 링컨, 마찌니 등을 거론하였다. 그는 수치를 알고 원통함을 아는 것이 국권상실의 원통함을 극복하는 원동력이 되며, 역사학은 정신교육을 위해 필요하다고 그 중요성을 부각시켰다.³⁶⁾

당시 청소년 및 학생들에게 애국심과 민족적 자부심, 상무(尙武)의 기상을 역사교육을 통해 고취시키고자 했던 사례로서, 신채호의 민족주의적 사학을 들 수 있다. 신채호는 한반도와 한국 민족이 제국주의에 대항해 민족을 보전하는 길은 민족주의를 크게 발분하여 우리 민족의 국가는 우리 민족이 주장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이러한 생각하에 신채호는 국권회복을 위한 방법으로 실력 양성의 전제가 되는 것이 애국심이며, 역사가 애국심 고취에 불가결한 원천이라고 강조하였다.³⁷⁾

2) 고대사 연구와 만주에 대한 관심³⁸⁾

현재까지의 연구성과에 의하면, 박은식의 우리 역사에 대한 연구결과, 그의 입장은 한국사가 이미 상고시대에 중국에 필적할만한 문화전통과 만주·동북 중국을 포함한 광범위한 지배영역을 갖고 있었다고 주장하는 견

35) 『夢拜金太祖』(국역본), 백암박은식선쟁전집편집위원회 편, 2002, 『白巖朴殷植全集』제4권, 동방미디어, 180쪽.

36) 『夢拜金太祖』(국역본). 『白巖朴殷植全集』제4권 저술 IV, 200~212쪽.

37) 노무지, 1998, 「구한말 단계 신채호의 역사인식」, 『중앙사론』10~11호, 중앙사학회, 199~203쪽.

38) 근대 조선 뿐만 아니라 중국 및 일본의 지식인들도 만주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였다. 이와 관련된 설명은 아래 연구성과를 참조하기 바람. 강성봉, 2009, 「1930~40년대 중국 지식인의 ‘동북지역사’ 인식 -푸쓰넨과 진위푸를 중심으로」, 『일제시기 만주사·조선사 인식』, 동북아역사재단, 81~122쪽; 김창규, 2006, 「일본의 중국 침략과 중국 자유주의 지식인의 ‘滿洲’ 인식(1931~1937) -『獨立評論』을 중심으로」, 『中國近現代史研究』32집, 27~52쪽; 임성모, 2006, 「근대 일본의 만주 인식 -제국의식의 정치·문화적 자장」, 고구려연구재단, 『北方史論叢』12호, 7~35쪽.

해에 속한다.³⁹⁾ 박은식은 조선족과 만주족이 모두 단군의 자손이었으나, 서로 남북으로 나뉘어져 살게 되어 다른 종족처럼 되었다고 보았다.⁴⁰⁾ 그리고 박은식의 『몽배금태조(夢拜金太祖)』에서는 만주지역이 고구려와 발해의 영토임을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무릇 이 땅은 우리 선조의 옛 영토이다. 지금 그 여도(興圖)의 전부를 살펴 고대의 유적을 찾은 즉, 백두산은 단군대황조께서 발상하신 땅이요, 현도 이북의 천여리에 걸치는 고부여국(古扶餘國)은 오늘의 개원현(開原縣)으로서 단조(檀祖) 후예의 땅이고, 요동(遼東) 서쪽의 이천리에 걸친 영평부(永平府)는 기씨(箕氏朝鮮)의 경계이고, 서쪽으로 금주(金州) 해안을 경계로 하여 동쪽으로 흑룡강(黑龍江)을 끼고 북으로 개원현에 이르기까지는 모두 고구려와 발해의 강역으로서...⁴¹⁾

한편, 신채호는 한말 학부검정의 교과용 국사 내용에 대해, 모든 교과서가 공통적으로 부여(단군)보다는 韓(기자)에 중심을 두었다고 보았다. 그리고 신채호는 당시 교과서의 내용이 중국에 대해서는 지나치리만큼 독립자주를 강조하면서도 일본에 대해서는 비교적 우호적인 입장을 취하였다고 비판하였다.⁴²⁾ 이러한 인식하에 신채호는 역사연구가 독립운동이자 국권을 되찾는 운동이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으며, 이후 한국 고대사에 대해 일련의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신채호는 삼국이전의 한국 상고사가 거의 체계화되어 있지도 않고 인식의 대상으로 되어 있지도 않은 종래의 한국사 연구를 새롭게 조명하였다. 그리고 과거 기자-위만 혹은 기자-삼한 중심의 역사를 부여-고구려 중심의 고대사로 전환시켰다. 그리하여 신채호는 일련의 저술을 통해 종래의 단군-기자-위만조선으로 연결되는 인식체계나, 단군

39) 이만열, 2007a, 위의 글, 254~255쪽.

40) 『夢拜金太祖』(국역본), 『白巖朴殷植全集』제4권, 171쪽.

41) 『夢拜金太祖』(국역본), 『白巖朴殷植全集』제4권, 169쪽.

42) 한영우, 1996, 「제2장 한말 신채호의 민족주의사론」, 『한국민족주의역사학』, 일조각, 40~47쪽. 신채호의 당시 교과서 비판의 자세한 내용은 한영우, 1886, 위의 글, 39~52쪽을 참조하기 바람.

-기자-마한-신라로 연결되는 인식체계를 거의 의식하지 않고, 단군-부여-고구려로 계승되는 한국 고대사의 새로운 체계를 제시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⁴³⁾ 신채호는 고구려사를 중시하였으며, 『讀史新論』에서 삼국중 고구려를 부여족 고대사의 주인공이라고 설정하였다.⁴⁴⁾ 신채호는 기자조선은 부여족이 세운 나라이며, 고구려와 백제 및 신라도 부여족의 일파라고 보는 반면, 馬韓(三韓)은 土族으로서 부여족에 정복된 것으로 보고, 기자조선, 말갈, 옥저 등도 모두 客族으로 설명하였다.⁴⁵⁾

또한 신채호는 만주를 한국 민족의 역사에 포함시켜, 한국고대사를 체계화하려고 시도하였다. 그 예로서 신채호는 1908년 『대한매일신보(大韓每日申報)』에 「韓國과 滿洲」라는 논설을 다음과 같이 발표하면서 만주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켰다.

한국과 한줄기 강으로 떨어져서 한국 영욕화복(榮辱禍福)의 기관을 만드는 지방이 있으니 그 땅은 어디인가? 만주(滿洲)가 그것이다. 기자(記者)는 한국 사천년 역사상에 피차간 관계되는 실적을 들어서 학문에 뜻을 둔 여러 군자의 연구에 제공하노라.

단군이 처음으로 나신 성인으로서 조선국(朝鮮國)을 창건하실 때, 만주를 중시하여 그 아들 ‘부루(夫婁)’로 하여금 이를 개척해서 후세 자손에게 남겨 주었는데, 그 후예가 중간에 쇠해서 강토를 많이 잃고 몇백년 역사상에 영광을 나타내지 못했다. 그러나 오히려 만주 한 지역을 근거지로 하여 동명왕(東明王) 주몽(朱蒙)이 이것을 빙자(憑藉)하여 한 채찍을 들어 동쪽을 가리 킴에, 위씨(衛氏)와 한씨(漢氏, 漢代의 四郡二府) 등 支那族이 몇백년 동안 기르고 쌓았던 세력을 하루아침에 정복하였고, (...중략...)

43) 이만열, 2007b, 「단재 신채호의 고대사 인식」, 이만열, 『한국 근현대 역사학의 흐름』 서울 : 푸른역사, 277~289쪽. 신채호의 고대사 인식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은 이만열, 2007b, 위의 글 및 김명구, 2002, 「한말·일제강점 초기 신채호의 민족주의 사상」, 백산학회, 『백산학보』62호, 229~262쪽을 참조하기 바람.

44) 조인성, 2009, 「신채호의 고구려사 인식 -북한에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동북아역사재단, 『동북아역사논총』23호, 239~244쪽.

45) 노무지, 1988, 위의 글, 218~222쪽. 신채호의 역사관을 비롯하여 부여사 인식에 대해서는 송호경, 2006, 「부여사에 대한 인식의 변천」 『사회과학연구』제7집, 한국교원대 사회과학연구, 84~87쪽을 참조하기 바람.

그 후에 대무신왕(大武神王), 광개토왕(廣開土王)이 이어서 일어나서 칠천 리 강토를 넓히고 큰 제국을 세웠으니 이것이 비록 성왕(聖王) 응주(雄主)의 광재대략(廣才大略)에서 나온 바이지나, 또한 그 근거지의 형세가 있었기 때문이니, 만주는 진실로 한국에 중요 관계가 있는 지방이다. ...46)

신채호는 만주가 역사적으로 한국 민족의 흥망과 직결되는 지역이라는 지정학적, 역사적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그는 만약 일본이 만주를 지배하게 되면 일본제국주의의 지배권에 들어갈 것이며, 러시아가 만주를 지배하게 되면 러시아의 지배권내로 들어갈 것으로 우려하였다.

...지금까지 대강 기록한 만주역사(滿洲歷史)를 보건대, 한국(韓國)과 만주의 관계가 얼마나 가까운가? 한민족(韓民族)이 만주를 얻으면 한국이 강성하며, 다른 민족이 만주를 얻으면 한민족이 쇠퇴하며, 또 다른 민족 중에도 북방민족(北方民族)이 만주를 얻으면 한국은 북방민족의 세력권내에 들어가고, 동방민족(東方民族)이 만주를 얻으면 한국은 동방민족의 세력권내에 들어갔으니, 오호라! 이는 사천년 이래 바꾸지 못할 정해진 전례가 되었다.

만주가 한국과 이같이 중요한 관계가 있는 것을 아는 자가 몇백 년간 인물에 몇 사람이나 있었는가? (...중략...) 동서가 통한 이후로 이 땅이 더욱 동아(東亞) 경쟁에 불붙는 곳이 되어 러시아, 일본 양국이 만주 문제로 수십 년을 서로 다투는데도 한국은 수수방관하기만 하더니, 이제 만주는 어떻게 되고 한국은 어떻게 되었는가? ...47)

그리고 신채호는 1910년 1월에는 「滿洲와 日本」, 「滿洲問題에 就하여 再論함」이라는 논설을 발표하여 만주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촉구하였다. 신채호가 만주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 것은 당시의 국제정세의 변화로 조선인의 만주진출이 용이해지는 기회를 이용하자는 현실적인 정치 목적에서 출발한 것이었다. 신채호에 의하면, 만주는 역사적으로 우리 민족의 흥망이과 직결

46) 신채호, 1908, 「韓國과 滿洲」, 『大韓每日申報』, 1908. 7. 25일자. 인용문의 원문은 『丹齋申采浩全集』(별집), 232쪽 참조.

47) 신채호, 1908, 「韓國과 滿洲」, 『大韓每日申報』, 1908. 7. 25일자. 인용문의 원문은 『丹齋申采浩全集』(별집), 형설출판사, 234쪽 참조.

된 곳이었다. 즉 한민족이 만주를 얻으면 한민족이 강성하며, 다른 민족이 만주를 얻으면 한민족이 열퇴한 위치에 처하는 중요한 전략지로 인식되었다.⁴⁸⁾

신채호는 역사적으로 만주가 우리의 영토임을 증명하고자 했으며, 이를 위해 첫째, 어느 종족이 만주를 장기간 지배하였으며, 둘째, 어느 종족이 최초로 만주에 나라를 건설했는가를 중시하였다. 이러한 목적하에 연구를 진행한 결과, 신채호는 단군시대의 영토를 만주 전역과 요동(遼東)으로 설정하였으며, 부여족이 만주의 패권을 장악한 민족이라고 설명하였다. 신채호의 이러한 북방사 연구는 조선내 빈곤과 일본 제국주의의 탄압을 못이겨 만주 등으로 이주하는 한국인들에게 만주가 한민족의 옛 국토임을 가르쳐주고, 구강토에서 자부심과 민족문화를 굳게 간직하여 만주를 근거지로 국권회복에 헌신할 것을 고취하는 일에 적합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⁴⁹⁾

5. 맺음말

이상 본문에서 살펴보았듯이, 한말 제국주의 국가들의 영토 팽창에 직면하여 일부 조선의 지식인들은 국제법 등을 원용하여 각국에 호소하고 주권을 수호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약육강식의 국제정치의 현실하에서 점차 자강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일본에 의해 국권 침탈의 위기에 처하여 박은식 등은 한국 민족이 다시 국권을 회복하고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버리지 않았다. 사회진화론의 영향을 받아 국제질서를 약육강식의 세계로 파악함에 따라, 조선이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하는 것을 피할 수 없는 현실로 받아들이면서도 자강을 통해 실력을 쌓아 나가면 언젠가는

48) 한영우, 1996, 위의 글, 67~68쪽. 신채호의 「滿洲와 日本」, 『大韓每日申報』, 1910. 1. 12일자 와 「滿洲問題에 就하여 再論함」, 『大韓每日申報』, 1910. 1. 19~22일자의 원문은 『丹齋申采浩全集』(별집), 235~243쪽 참조.

49) 노무지, 1988, 위의 글, 218~224쪽.

독립을 달성할 수 있으리라고 전망하였다.

따라서 을사조약의 체결이후 계몽운동가들은 애국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우리 역사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고조선, 고구려 등 한국 고대사에 대한 역사 연구를 통해 한반도와 만주가 긴밀한 관계에 있음을 설명함으로써 우리 역사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키고자 하였다.

본 논문에서 살펴본 당시 저술이 매우 한정적이고 제한되었지만, 이 시기 신채호 등은 한반도와 만주 등 동북아 지역에 대한 러일간 대결 등 열강의 동향을 계속 주시하였음을 알 수 있다. 현실적으로 만주가 러일간 등 열강들간의 각축장이 된 상황하에서, 신채호 등 민족주의적 사학자들이 고대사 연구를 통해 한민족이 이 지역의 주인공이었고 만주족과 긴밀한 관계였음을 강조하는 것은 당시 만주 등 중국 동북지역을 국권회복과 독립운동의 근거지로 삼았던 한국인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컸다고 하겠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 충분히 살펴보지 못한, 신채호와 박은식을 비롯하여 한말 조선의 여러 지식인들의 영토관과 북방지역에 대한 인식이 당시 조선의 전체적인 대외관과 역사인식속에서 어떠한 위상을 지니며, 어떠한 정치적, 역사적 함의를 지니는지를 좀더 자세히 밝히는 것은 향후 연구과제라 하겠다.

참고문헌

- 단국대 동양학연구소, 1987, 『張志淵全書』 八, 단대출판부.
- 단재신채호선생기념사업회, 1982, 『丹齋申采浩全集』(별집), 형설출판사.
- 단재신채호선생기념사업회, 1995, 『丹齋申采浩全集』(상권), 형설출판사.
- 朴泳孝, 1888, 「朝鮮國內政ニ關スル朴泳孝建白書」, 日本 外務省 編, 『日本外交文書』21卷.
- 박은식 저·장석홍 역, 1989, 「몽배금태조」 『연개소문전/몽배금태조』,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 이만손, 「嶺南萬人疏」, 조일문 역, 1988, 『조선책략』, 건국대 출판부, 89~105쪽.
- 이만열 편, 1980, 『朴殷植』, 한길사.
- 이승만, 1904, 『독립정신』, 정동출판사.
- 『高宗實錄』
- 『夢拜金太祖』(국역본), 백암박은식선재전집편찬위원회 편, 2002, 『白巖朴殷植全集』 제 4권 저술 IV, 동방미디어.
- 『한성순보』, 『한성주보』, 『독립신문』, 『호남학보』, 『태극학보』, 『대한매일신보』, 『대한학회월보』
- 강성봉, 2009, 「1930~40년대 중국 지식인의 ‘동북지역사’ 인식 - 푸쓰넨과 진위푸를 중심으로」 『일제시기 만주사·조선사 인식』, 동북아역사재단, 81~122쪽.
- 국사편찬위원회, 1999, 『한국사 43 : 국권회복운동』, 탐구당 문화사.
- 김명구, 2002, 「한말·일제강점 초기 신채호의 민족주의 사상」 『백산학보』62호, 백산학회, 229~262쪽.
- _____, 2009, 「신채호의 고구려사 인식 - 북한에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동북아역사논총』23호, 동북아역사재단, 239~269쪽.
- 김용구, 2009, 『거문도와 블라디보스토크』, 서강대출판부.
- 김창규, 2006, 「일본의 중국 침략과 중국 자유주의 지식인의 ‘滿洲’ 인식(1931~1937) - 『獨立評論』을 중심으로」 『中國近現代史研究』32집, 27~52쪽.
- 김현철, 2004, 「위암 장지연의 자강사상과 대외인식」 『제10회 위암장지연기념 학술세미나 발표논문집』 2004. 11, 위암장지연선생기념사업회 주최.
- _____, 2005a, 「개화기 『만국공법』의 전래와 서구 근대주권국가의 인식 : 1880년대 개화과의 주권 개념의 수용을 중심으로」 『정신문화연구』 2005년 봄호(통권 98호), 한국학중앙연구원.
- _____, 2005b, 「개화기 서구 국제법의 수용과 근대국제질서의 인식」 『한국정치연구』 제14집 1호, 서울대 한국정치연구소.
- _____, 2008, 「러일협약 전후시기 한국 지식인의 대외관과 북방사 인식」 『한-몽골

- 국제학술회의 발표 논문집』, 2008. 7. 10(울란바트), 한국정치외교사학회 주최.
- _____, 2011, 「19세기말 국제법의 전래와 동아시아 영토문제에 대한 한국 지식인의 인식」 『2011년 추계학술회의 발표 논문집』, 2011. 11. 5(전주), 한국정치학회 주최.
- 노무지, 1998, 「구한말 단재 신채호의 역사인식」 『중앙사론』10~11호, 중앙사학회.
- 동북아역사재단 편, 2007, 『북방민족사 : 연구논저 목록』, 동북아역사재단.
- 박명용, 2005, 「연해주를 둘러싼 한국과 러시아 영토문제 - 1650년에서 1900년까지」 『북방사논총』4호, 고구려연구재단, 37~86쪽.
- 박양신, 2001, 「청일전후 일본 지식인의 대외인식론 : 陸羯南과 德富蘇峰을 중심으로」 『동양학』제31집, 단국대 동양학연구소.
- 박찬승, 1992, 『한국근대정치사상사 연구 - 민족주의우파의 실력양성론』, 역사비평사.
- 배용일, 2002, 『박은식과 신채호 사상의 비교 연구』, 경인문화사.
- 배우성, 1998, 『조선후기 국토관과 천하관의 변화』, 일지사.
- 서영대, 2008, 「근대 한국의 단군인식과 민족주의」 『동북아역사논총』20호, 동북아역사재단, 7~49쪽.
- 송호정, 2006, 「부여사에 대한 인식의 변천」 『사회과학연구』 제7집, 한국교원대 사회과학연구.
- 신연재, 1991, 「동아시아 3국의 사회진화론 수용에 관한 연구 - 加藤弘之, 梁啓超, 申采浩의 사상을 중심으로」,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 신용하, 1977, 「朴殷植의 儒敎求新論 · 陽明學論 · 大同思想」 『역사학보』73집, 역사학회, 35~84쪽.
- _____, 1981, 「朴殷植의 歷史觀(下)」 『역사학보』91집, 역사학회, 145~916쪽.
- 우남숙, 2004, 「박은식과 사회진화론」 『2004년도 하계학술회의 발표논문집 : 유교정치사상의 재평가와 근대 한일에서 서구정치사상의 수용』(청주), 한국동양정치사상사학회.
- 유영열, 1997, 『대한제국기의 민족운동』, 일조각.
- 유영욱, 2009, 「白巖과 丹齋의 연개소문 인식」 『역사와 경계』71호, 부산경남사학회, 203~237쪽.
- 이리에 아키라(入江昭) 저, 이성환 역, 2002, 『일본의 외교』, 푸른산.
- 이민열, 2007a, 「박은식의 사학사상」 『한국 근현대 역사학의 흐름』, 푸른역사, 223~258쪽.
- _____, 2007b, 「단재 신채호의 고대사 인식」 『한국 근현대 역사학의 흐름』, 푸른역사, 259~305쪽.
- 이호재, 1994, 『한국인의 국제정치관』, 법문사.

- 임기환, 2004, 「고구려사의 민족사 인식」 『인문과학연구』제9호, 카톨릭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 임성모, 2006, 「근대 일본의 만주 인식-제국의식의 정치·문화적 자장」 『北方史論叢』12호, 고구려연구재단, 7~35쪽.
- 田中彰, 1999, 『小國主義-日本の近代を讀みはなす』, 岩派書店 ; 강진아 역, 2002, 『소일본주의-일본의 근대를 다시 읽는다』, 도서출판 소화.
- 정낙근, 1993, 「개화지식인의 대외관의 이론적 기초」 『한국정치학회보』27집 1호.
- 조인성, 2009, 「신채호의 고구려사 인식-북한에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동북아역사논총』23호, 동북아역사재단, 239~269쪽.
- 조항래 편저, 1993, 『1900년대 애국계몽운동연구』, 아세아 문화사.
- 진덕규, 1994, 「한말 지배층의 대외인식에 대한 비판적 검토」 『국사관논총』60, 국사편찬위원회.
- 천관우·최준·구자혁 외 11인 저, 1993, 『장지연 연구논총 : 위암 장지연의 사상과 활동』, 민음사.
- 최홍규, 2005, 『신채호의 역사학과 민족운동』, 일지사.
- 하종문, 2005, 「일본과 러시아의 국경획정 문제에 대한 고찰-포츠머스강화조약까지」 『북방사논총』4호, 고구려연구재단, 87~125쪽.
- 한상일, 2002, 『아시아 연대와 일본제국주의 : 대륙낭인과 대륙팽창』, 도서출판 오름.
- 한영우, 1996, 「제2장 한말 신채호의 민족주의사론」 『한국민족주의역사학』, 일조각, 39~84쪽.
- 현광호, 2009, 「박은식의 동아시아 인식」 『백산학보』83호, 백산학회, 645~674쪽.

■ Abstract ■

Late Joseon's Perception on the International Law and Territory
–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Theory of Self-Strengthening and
Research on Korean Ancient History of Park Eun-sik and Shin
Chae-ho –

Kim, Hyun – Chul

This paper examines how Korean intellectuals viewed and sought ways to deal with the international law, and territorial perception of the West amidst rapid changes in the international landscape of Northeast Asia from late nineteenth and early twentieth century, by analyzing newspapers and magazines of the time.

The intellectuals generally perceived imperialistic territorial expansion of the Western powers as a natural flow under the reality of “the law of the jungle” and “survival of the fittest.” With increasing threat from Western Powers and tension between Russia and Japan over Korean peninsula, the government and some scholars of Korea strived to protect their territory and sovereignty, but power politics got in the way of their efforts. Expectation for the international law was largely undermined by Britain's occupation of Geomun Island, and the Eulsa Treaty of 1905. Also, Korean intellectuals paid great attention to territorial changes in the East Asian region such as Japanese expansion, and showed some level of understanding of the modern concept of territory after accepting the Western theory of the state. They had to consider all possible means including armed resistance in order to confront Western powers and Meiji Japan. Enlightenment scholars of the twentieth century empathized the importance of Korea's own history while encouraging nationalism and patriotism among Koreans. In particular, Korean enlightening intellectuals, such as Pak Eun-sik(朴殷植) and Shin Chae-ho(申采浩) explained the historical relations between Korea

and Northeast Asian regions including Manchuria, and suggested a way to study the ancient history of Korea.